DREAM
MAKE IT.

14-23
2014.06.16

체어퍼슨 노트

주간브리핑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세계은행,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경영 노트 : 부자들이 프리미어리그에 투자하는 이유
- 사회 트렌드 : 폭식시청族
- 저널 브리프 :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 3가지
- 금주의 도서 : 21세기 자본론
- 洗心錄 : 붉은 악마의 시민의식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 **정부는 새누리당과 지난 13일 국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 수에 관계없이 2천만 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비과세기간 연장** :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 **전세 과세** :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시 조세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평성이 증대되나,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전월세 공급 축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상존**

□ 세계은행,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세계은행이 미국의 혹한, 신흥국의 정정불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

- **세계 경제** : 선진국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2014년 1월 전망에서 3.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혹한으로 인한 미국의 1/4분기 저성장,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경제의 재조정 등의 원인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
- **선진국 경제**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2%에서 1.9%로 조정, 미국 2.8%→2.1%, 일본 1.4%→1.3%로 2014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유로존은 1.1% 유지)
- **신흥국 경제** :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5.3%에서 4.8%로 조정,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2.2%에서 0.5%로 큰 폭의 하락을 예상, 또한 인도 6.5%→5.5%, 브라질 2.4%→1.5%, 중국 7.7%→7.6%로 하향 전망

○ **세계은행은 2014년 세계경제가 여러 가지 악재들로 부진하겠지만, 2015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4%로 유지)**

□ 부자들이 프리미어리그에 투자하는 이유[1)]

○ **축구는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에 거금을 투자하는 사업가들이 많음**

- 세계 최고의 리그로 통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투자한 사업가들(혹은 갑부들)조차 대개는 수익 확보에 실패하고 있음

○ **왜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섯 가지 이유를 소개**

< 부자들이 프리미어리그에 투자하는 이유 >

	내 용
장난감	•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이 많은 사업가가 단지 개인적인 재미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 첼시를 인수한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맨체스터시티를 인수한 아부다비의 셰이크 만수르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
브랜드 홍보	• 2010년 인도의 치킨회사 벵키스는 회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블랙번 로버스를 인수 • 실제로 벵키스는 유명해졌지만 그 이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음. 벵키스는 블랙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약속했지만 잇따른 실수로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할 만한 팀을 하부리그로 강등시켰고, 팬들은 거세게 항의했음
투자	• 맨유는 미국 글레이저 가문이 클럽을 인수하기 전까지 축구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거두는 팀이었음 • 글레이저 가문은 맨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맨유를 담보로 찬 차입 매수를 했는데, 그 결과 빚진 돈은 고스란히 맨유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음 • 이 빚 때문에 맨유는 최고 수준의 선수를 사오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나마 알렉스 퍼거슨 감독 덕분에 버틸 수 있었음
개인 사정	• 이집트 출신의 모하메드 알 파예드는 유럽 최고의 백화점인 '해러즈'의 소유주였지만 영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 • 그는 축구 클럽의 소유주가 되면 시민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풀럼을 인수했으나 시민권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았음
고국에 과시	• 말레이시아 출신의 기업가 빈센트 탄은 2012년 카디프시티를 인수했고, 클럽을 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시키는 데 많은 돈을 투자 • 빨간색이 말레이시아와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파란색보다 더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탄 구단주는 유니폼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음 • 1899년 창단 이래 파란색을 팀의 상징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구단주의 일방적인 조치에 팬들은 분노했고, 팬심을 잃은 팀은 하부 리그로 강등되었음
사업 확장	• 토니 페르난데스는 저가 항공사 '에어 아시아'를 커다란 브랜드로 키워낸 다음 QRP을 인수 • 그는 QPR을 이용해 항공사를 광고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아시아 축구 선수 중 가장 유명한 박지성을 영입하여 한국 시장 진출은 노렸음

1) '갑부들은 왜 손해 보면서 프리미어리그에 투자하나?'(조선일보, 2014.06.07)를 요약 정리함.

□ 폭식시청族[2)]

○ **'폭식시청(暴食視聽)'이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한 번에 3편 이상, 많게는 10여 편까지 몰아보는 새로운 시청 행태를 말함**

-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던 '카우치 포테이토'(couch potato)들이 이제는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임
- 이를 두고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그랜트 매크래큰은 "카우치 포테이토들이 마침내 깨어났다"고 평가함

○ **폭식시청은 최근 미국과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주문형 비디오(VOD)와 온라인 동영상(OTT)가 인기를 끌면서 생긴 현상**

- 글로벌 OTT업체인 '넷플릭스'는 가입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3,570만 명으로, 1년 만에 22.3% 증가했음
- 넷플릭스는 특히 최근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자체 제작 드라마 전편을 한 번에 공개하는 전략으로 인기몰이 중임
- 중간광고를 건너뛰고 싶고, 다음 편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싫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것임

○ **실제 넷플릭스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61%가 "정기적으로 폭식시청을 한다"고 답했고, 73%는 "폭식시청이 만족스럽다"고 응답**

- 특히 18~34세 시청자들에게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전자업계도 '폭식시청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관련 마케팅을 전개 중임**

- 삼성전자는 '오래 봐도 눈이 아프지 않은 TV'를 콘셉트로 커브드 초고화질(UHD) TV를 홍보하는 한편, 몰아서 볼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넷플릭스, 아마존, 디렉티비 등 콘텐츠 업체들과 손잡고 UHD 콘텐츠를 확대하는 중이고 21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등 할리우드 제작사들과 함께 영화·다큐멘터리들을 모아 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형태의 'UHD 비디오팩'도 내놓음

2) '폭식 시청족 잡아라, 국내외 콘텐츠업계 들썩'(동아일보, 2014.6.12)을 요약 정리함.

□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 3가지[3)]

○ 기업이 경영 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및 대응 전략을 소개

-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은 위기가 언제 발생하는지의 발생 시점과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의 발생 확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기업이 모든 위기 상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면 위기를 곧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① 크라이시스(Crisis)

-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기업이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크라이시스(Crisis)'라고 지칭
-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불을 끄고 지혈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가능한 한 일찍 등장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
- 확실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정보의 생산을 예방하지 못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

② 리스크(Risk)

-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의 90%이상 해당하는 상황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리스크(Risk)'로 지칭
- 리스크의 발생 원인은 원천에 따라 첫째, 기업 구성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과 둘째, 구성원의 일에 대한 스킬 부족 및 부주의에 의한 상황으로 구분
- 고의에 의한 리스크는 감사와 같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스킬 부족 및 부주의에 의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활용

③ 불확실성(Uncertainty)

-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번 터지면 그 영향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지칭
- 전쟁이나 천재지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아주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이 이에 해당
- 이의 대비를 위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그 중 가능성이 큰 몇 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응 전략을 미리 설정해 놓음으로써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

3) '사과 주저하다 괴담에 무너지는 기업들'(한경비즈니스, 2014.06.05)참조.

□ 21세기 자본론[4)]

토마스 피케티(Tomas Piketty)는 22살에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분배문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1993년에서 1995년까지 미국 MIT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일했고 이후 프랑스로 복귀해 The Paris School of Economics를 세우는데 참여했으며 현재 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있음.

○ **현재 자본주의는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해 체제 전반에 위기 발생**

- 19세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r)이 산출이나 GDP증가율(g)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재현
-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능력중심주의(meritocracy)의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도저히 감내해낼 수 없는 불평등이 초래

○ **β(=자본/국민소득)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장기적으로 700%대 예상**

-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β는 1910년대까지 700%에서 1950년대 20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400% 이상
- 자본은 기존 자본에 대한 수익률(r)과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 곧, 저축률(s)에 의해 영향 받는데 장기적으로 r은 4~5% 그리고 s는 평균적으로 10% 수준
- 세계 GDP 성장률(g)은 인구와 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20세기 중후반 4%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가장 큰 이유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 장기적으로 r이 4~5%를 유지하는 동안 g는 1.5%수준으로 수렴(r>g)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β가 지속 상승

○ **20세기 중반 자본의 시장가치 하락 유도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이 자본소득을 축소시키고 적극적인 근로소득 보전이 소득분배를 개선했지만 현재는 정반대 상황**

- 20세기 초중반 β가 감소했던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산과 상속 그리고 소득에 대한 강력한 누진과세를 적용했고 유럽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 완성
-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민간소유 자본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자본소득을 크게 늘려 β증가와 함께 소득분배가 왜곡되기 시작

○ **전 세계적인 자본에 대한 과세만이 β를 낮추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으로부터 얻는 최상위소득자에 돌아가는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은 전 세계국가들의 공통된 행동을 요구하며 모든 국가들이 자본과 자본소득의 시장가치를 낮추는(β를 낮추는)정책에 대한 논의 절실

4)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붉은 악마'의 시민의식

지난 주 월드컵이 개막하였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은 그 어느 때 이상의 열띤 응원과 멋진 경기가 돋보였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브라질의 노란색 응원단의 모습은 지난 한일월드컵의 붉은 악마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기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열띤 응원 뒤 우리가 보여준 시민의식 때문이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했고 부상자도 없었다. 경기가 끝난 뒤 너나할 것 없이 남겨진 쓰레기를 모으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2006년 월드컵 때는 달랐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응원단이 거리 곳곳을 누볐지만, 쓰레기양은 개인 쓰레기에 기업홍보물이 더해져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시민의식을 발휘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이 때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에도 실패하였다.

시민의식은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근본이 되는 태도나 신념체계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은 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감, 호혜적 태도, 사회참여 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필요한 욕구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공유된 믿음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연대의식이다. 하지만 간혹 공동체 의식은 '집단주의'를 감추고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집단주의는 대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둘 중 하나로 표출된다. 2002년에 보여줬던 조건 없는 하나됨과는 분명히 다르다.

"붉은 악마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시민의식을 깨워, 진정으로 하나된 승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

인생을 아는 자는 고난 또한 기회라는 것을 안다.

- 노만 빈센트 필(1898-1993): 목사이자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